

피아니스트 캐롤라인 피셔 공연

21일 전남대 개교 60주년 초청 콘서트

독일 출신 젊은 피아니스트 캐롤라인 피셔가 광주에서 공연을 갖는다.

전남대학교는 개교 60주년을 맞아 캐롤라인 피셔 초청 콘서트를 개최한다. 21일 오후 7시 전남대 예술대학 예향홀.

독일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한국계 피아니스트인 캐롤라인 피셔는 9세에 베를린 예술대학 예비학교인 율리우스 슈테른 음악원에 입학했으며, 이후 만하임 국립음대, 제네바 음악원, 노르웨이 음악원에서 수학했다.

독일 청소년 음악콩쿠르 유겐트 무지치어트, 스타인웨이 피아노 콩쿠르, 쾰른 소피 샬롯 국제 콩쿠르, 독일 클래식 라디오 콩쿠르, 체코와 뮌헨의 국제 콩쿠르 등에서 1위 입상한 그녀는 베를린 라디오 심포니오케스트라 등과 협연무대를 갖기도 했으며 현재 2장의 음반을 발매했다.



연주회 레퍼토리는 베토벤의 '월광', 리스트의 '스페인 광시곡'라 캄파넬라, 슈만-리스트의 '현정' 등이 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첼로, 그 깊고 멋스러운 울림

이지현 독주회 21일 유·스퀘어문화관



이지현 첼로 독주회가 오는 21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연주회 레퍼토리는 바흐의 '첼로 소나타 3번', 드뷔시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D단조', 멘델스존의 '피아노와 첼로를 위한 소나타 2번' 등이다.

전남대를 졸업하고 독일 아헨 국립음대, 네덜란드 마스트리트 국립음대 등에서 수학한 이지현은 전남대 재학생 광주시향과 협연무대를 가졌으며 독일에서 4차례 콘서트를 갖기도 했다.

현재 호남신학대에 출강중이며 무지크바움 앙상블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피아노 반주는 박진희씨, 문의 010-6331-683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공모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건축가협회가 주관하는 '2012년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이 16일부터 6월 29일까지 작품 공모에 들어간다.

신청 대상은 '시민을 위한 공간을 개선해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지역 문화의 활성화에 기여한 구체적인

장소·마을·도시'나 '민간·지자체·시민단체가 사람과 문화가 중심이 되는 공간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활동과 그 결과물'이다.

시상은 오는 10월 18일에 개최될 예정인 '2012 대한민국 건축 문화제' 기간에 진행된다. /연합뉴스

소설같은 인생 '엄마'

27일 전남여성플라자

'당신의 이야기가 바로 공연이 됩니다.'

문화 기획 단체인 (사)아정문화예술원이 진행하는 '승운(乘運)'은 관객과 이야기를 나누고 예술로 소통을 제시하는 생방송 프로그램이다. 이야기와 공연이 어우러지는 '승운'은 이름처럼 좋은 운수를 타고 다니며 좋은 운을 퍼뜨리는 공연을 만들고 싶다는 꿈을 담고 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승운이 기획한 세번째 이야기 '엄마, 그 소설 같은 인생이!'(26일 오후 7시 목포(제) 전남여성플라자 공연장)가 공연된다. 전남여성플라자와 함께 공동기획한 이번 프로그램은 여자로서, 엄마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나누고, 그 이야기들이 공연으로 만들어지는 의미있는 행사다.

공연은 '은혜' 등 다섯가지 테마로 구성된다. 대부분은 각계 각층의 여성들이 적어낸 사연(사연 접수는 공연 3일전까지 받는다)으로 구성되고, 각 테마별로 국악, 클래식 등 다양한 연주 프로그램이 어우러진다.

'은혜'는 맨 처음 엄마가 됐을 때의 소감을 이야기한다. '용기'는 여자로서 살아가며 가장 힘들었을 때와 가장 기뻐했을 때의 추억을 말하는 시간. '신의'는 나의 남자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사랑'은 또 다른 '엄마'인 어머니를 향한 사랑 고백. '운기'는 행복한 가정을 지켜내기 위해 내가 하는 사소한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코너다.

'어머니'를 소재로한 관객이벤트도 눈길을 끈다. 이벤트의 주인공은 올해 91세인 김영자 화백이다. 김 화백의 제자로 그녀를 '예술적 어머니'로 섬기는 홍영자씨가 김 화백과 관련된 사연을 소개하고, 그녀가 즐겨들었던 음악과 그녀의 예술적 영감의 소재였던 사물놀이 등에 이야기한다. 홍씨의 사연을 공연으로 풀어내는 이는 타악연주자 양보나씨다.

이야기·공연 어우러진 '승운'

보통 엄마들의 사연으로 꾸며

은혜·사랑·용기 다섯가지 테마

또 현재 국립창극단의 주역이자 판민 현준의 아내이기도 한 목포 출신 소리꾼 박애리씨는 '어머니'를 소재로한 소리를 들려주며 해금 연주자 남미선씨는 엄마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음악을 선사한다.

지난해 첫 공연을 선보였던 (사)아정문화예술원은 기획자 남미선씨가 이끄는 그룹으로 이야기와 어우러진 공연을 카페 등 다양한 공간에서 펼치고 있다.

이리나·이보라·박선경·강세련씨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인들이 함께 활동중이다. 문의 062-576-646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해금 연주자 남미선씨(왼쪽)와 소리꾼 박애리씨.

장애 넘은 감동의 하모니

광주YMCA 20일 '트라이앵글' 후원음악회

광주YMCA는 20일 오후4시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발달장애청소년 지원센터 '트라이앵글' 후원음악회를 연다.

'5월의 푸른 행진곡'이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날 음악회는 광주YMCA Dream청소년오케스트라(지휘: 강재진)의 연주와 발달장애청소년들이

꾸미는 난타공연, 시낭송, 클로징 합창 공연 등으로 구성된다.

광주YMCA는 트라이앵글지원센터를 통해 지적·자폐성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의 사회자립을 목표로 자신감 회복프로그램, 기초학습지원, 장보기, 버스타기, 체험활동, 공동체놀이, 야외 체험활동 국제교류(요코하마)캠프프로그램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김미은기자 mekim@



'여수 앞바다'

사진작가 배병우가 포착한 '바다'

6월 30일까지 여수 예술마루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여수 출신 중견 사진작가 배병우씨가 여수 박람회장 일대에서 사진전을 연다. 배씨는 GS칼텍스 예술마루에서 오는 6월 30일까지 '대양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사진전을 개최한다.

팍스타 엘튼 존이 그의 소나무 사진을 런던 사진페스티벌 때 구입한 뒤 '소나무 작가'로도 유명한 배씨는 이번 전시에서 30여 년 동안 포착해

바다의 모습이 담긴 사진 작품 40점을 선보인다.

고급함과 정겨움이 흠뻑 배어있는 남해 바다의 풍경이 담긴 그의 사진 외에 배병우의 오랜 동료인 음악가 김수철이 바다 사진에 영감을 받아 특별 제작한 영상 작품도 선보인다.

배씨는 홍익대 미대 출신으로 서울 예술대학 사진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동양 사진작가로는 최초로 스페인 티선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동부취재본부=김창화기자 ch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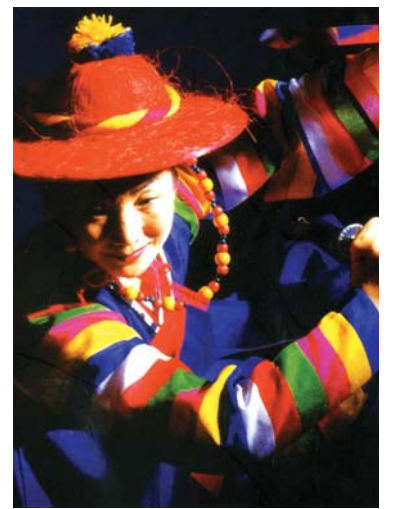
전통춤, 남도소리 상설무대에

임순자씨 23일 광주문화회관

충향 임순자(호남검무·전통춤 보존회 회장)씨가 광주문화회관이 기획한 남도소리 상설무대에 초청돼 '전통춤-이런 것들' 공연을 갖는다. 23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회관 소극장.

임씨는 한진옥류 호남검무의 맥을 잇고 있는 지역의 대표 무용인. 이번 무대에서는 화관무, 살풀이춤, 소고춤, 승무, 바라춤 등 다양한 전통무용을 만날 수 있다. 임순자·장인숙·오진선·유명숙씨 등이 함께 출연한다.

이날 공연에서는 '임순자의 춤추는 사계', '한진옥의 예술세계' 등을 촬영한 영상도 함께 상영한다. 전석초대.



문의 062-525-523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여성필과 '해피 콘서트'

20일 '5월, 음악의 향기' 광산문화예술회관

광주여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이하 광주여성필)는 올해 광주문화재단이 공모한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에 뽑혔다. 광주여성필이 처음으로 삼는 공간은 광주 광산문화예술회관.

'광주여성필과 함께하는 광산 해피 콘서트 시리즈'는 광주여성필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프로그램으로 첫번

째 연주회 '5월, 음악의 향기'가 오는 20일 오후 5시30분 구민들을 만난다.

독일 빌라르트 시립오페라극장 지휘자인 정나라씨가 객원지휘를 맡은 이번 연주회에서는 요한 스트라우스의 '봄의 소리 왈츠', 포레의 '파반느',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주제곡 등 친숙한 음악을 들려준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건강한 우리음식 **한정식**으로 만남의 기쁨을 더 하십시오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5,000원

30년 전통의 한정식 A코스 40,000원 / B코스 33,000원 C코스 25,000원

☎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게임동 홈플러스 건너편

www.geumsoojang.com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 위한 대소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식락

축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호

Be natural Be delicious

150여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가격안내 (이용시간: 11:30~22:00)

- 평일 성인(중학생이상): 25,000원
- 토·일·공휴일 성인(중학생이상): 29,000원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 출장뷔페, 도시락

유스퀘어 U-square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24시간 유스퀘어 사우나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피부샵(스파·마사지) 인터넷 · 안마기 · 이용원 · 세신 · 세탁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 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